



[정의선 1년]
소통으로 노조 설득
뚝심으로 신차 출시
침체시장 '군계일학'
03



10나노 초격차 공정 삼성 '1z D램' 양산

크기 줄이고 전력소비 낮춰
15개월 만에 또 한번 앞질러

삼성전자가 또다시 메모리반도체 초
격차를 벌리면서 '진짜 실력'을 유감없
이 뽐냈다.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기흥캠퍼스 17라인에서 3세대
(1z) D램 양산을 시작했다.

1z는 10세대 초중반 나노대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
더 작고 전력 소비가 적은 게 특징이
다. 반도체는 특성상 수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z D램은 기존
공정보다 정교하고 미세해 완제품의 디
자인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저전
력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1z D램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보다 전 세대
인 1y D램은 지난해 7월 양산에 돌입했
다. 1z 공정의 양산으로 삼성전자는 15
개월여만에 또 한번 벽을 뛰어넘은 셈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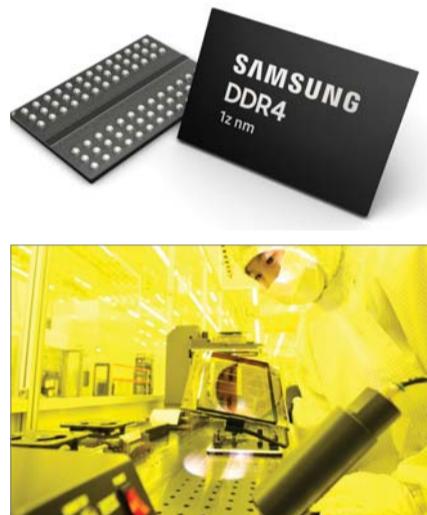
이번에 양산되는 제품은 15.8나노
로, 추후 14나노까지 공정 미세도를 줄
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종전에 쓴 공
정을 적용했지만, 추후 극자외선(EU
V) 공정을 도입해 수나노대 초극미세
제품 양산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z D램은 올해
중으로 양산할 예정인 게 맞다"면서도
"이날 기흥캠퍼스에서 해당 제품을 양
산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내년 중으로 1z
D램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
로 전해졌다. 미국 마이크론도 최근에
서야 1z D램 개발에 성공, 내년에서야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9월 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1년 전보다 0.4% 하락
통계청 "일시적 저물가"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
음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
(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
했다. (관련기사 4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
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
스를 가리킨 적은 있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 보합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
락한 것은 1965년 전도시 소비자물가
지수 통계 작성 아래 처음 있는 일이
다. 전년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
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
난달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물
가상승률은 비교 가능성, 오차를 고려
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보는 것이 매
뉴얼"이라며 "(이번이) 최초의 마이너
스 물가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기록
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를
밀든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
후 처음이다.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통
계청은 설명했다.

또 폭염의 영향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라 올해는 기상이 양호해 농·축·수산
물 생산량이 늘었고 가격은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
격이 1년 전보다 8.2% 하락했고 석유
류 가격은 5.6% 떨어졌다.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공공서비스가 1.

2%, 집세는 0.2% 하락했다.
어류·조개·채소·과일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
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5.3% 하락했다. 2008년 10월
(-15.6%) 이후 최저 기록이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
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 일시적·정
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라며 연말부터는 기저효
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장병 격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조종사와 고공 강하 장병 등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 임상, 美 투자자 먼저 알고 공매도?

발표 앞두고 대차잔고 급증
"해외서 정보유출 의혹" 제기

한국 바이오가 외국인 공매도에 신음
하고 있다. 미국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는 패턴이 지속되면서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되
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금융당
국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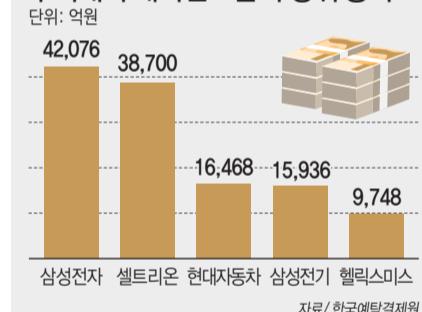
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임상 3상
중단과 실패의 결과를 발표한 후 추락을
거듭한 바이오주들의 공매도 잔고가 발
표 직전 모두 급증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
는 만큼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헬릭스미스의 경우, 지난 달 '엔젤파

9월 외국인 대차거래 상위 종목



주식대차 대차잔고금액 상위 종목



만에 4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특히, 헬릭스미스가 첫 번째 임상 3
상을 마치고 지난 16~18일 미국 시카고
에서 임상수탁기관(CRO)이 제공한데
이터를 정밀 분석한 이후 공매도 거래
는 갑작스레 늘어났다. 지난 18일 공매
도 거래대금은 212억원으로 전일보다
55% 급증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지속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
(DMC)으로부터 항암제 페사비의 임
상 3상 중단을 권고받은 신라젠의 경우
도 마찬가지다. 신라젠의 공매도 잔고
는 올해부터 꾸준히 늘어났고, 임상 3상
중단을 발표하기 전 갑자기 거래가 급
증했다.

업계는 이 공매도 세력이 대부분 외
국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
서 진행된 임상이었던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DLF 20%가 불완전판매… 은행 추가 검사"

금감원, 현장검사 중간결과

금융당국은 은행의 파생결합상품(D
LF·DLS)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
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의 설
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
다. 향후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
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
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DLF·DLS)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채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
행은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해 가며 상품을 판매했고, 자산운용
사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해 제공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상
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
행의 영업점 성과지표에서도 문제가 드
러났다. 지표상 비이자수익 배점이 여
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된 반면, 소
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것.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은 경
쟁 은행 대비 2~7배 가량 높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출시과정에서
도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
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
에 불과했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금감원은 DLF 상품 유통 과정에서
금융사가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
/홍민영 기자 hong93@

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
입했다.

금감원은 DLF 상품 유통 과정에서
금융사가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
/홍민영 기자 hong93@